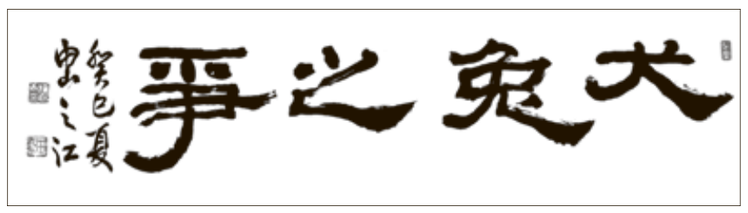
■ 고사성어



견토지쟁 : 개와 토끼의 다툼이란 뜻. 곧 ①양자의 다툼에 제삼자가 힘들이지 않고 이(利)를 봄의 비유. 횡재(橫財)함의 비유. ②쓸데없는 다툼의 비유

전국시대, 제(齊)나라 왕에게 중용(重用)이 된 순우곤(淳于髡)은 원래 해학(諧謔)과 변론의 재능이 뛰어난 세객(說客)이었다. 제나라 왕이 위(魏)나라를 치려고 하자 순우곤은 이렇게 진언했다.

"한자로(韓子盧)라는 매우 발빠른 명견(名犬)이 동곽준(東郭逡)이라는 재빠른 토끼를 뒤쫓았사옵니다. 그들은 수십 리에 이르는 산기슭을 세 바퀴나 돈 다음 가파른 산꼭대기까지 다섯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바람에 개도 토끼도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나이다.

이때 그것을 발견한 '전부(田父 : 농부)는 힘들이지 않고 횡재[田父之功]'를 하였나이다.

지금 제나라와 위나라는 오랫동안 대치하는 바람에 군사도 백성도 지치고 쇠약하여 사기가 말이 아니온데 서쪽의 진(秦)나라나 남쪽의 초(楚)나라가 이를 기회로 '전부지공'을 거두려 하지 않을지 그게 걱정되옵니다"

이말을 듣자 왕은 위나라를 칠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부국강병(富國强兵)에 힘썼다.

由江 권승세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H. P : 010-5483-7511
-약력-
·개인전4회, 초대그룹전25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원 원장

각주구검 : 칼을 강물에 떨어트리자 뱃전에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으려 한다는 뜻으로, 어리석어 시세에 어둡거나 완고함을 비유.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의 한 젊은이가 양자강(楊子江)을 건너기 위해 배를 탔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만 실수하여 손에 들고 있던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뿔사! 이를 어쩐다?'

젊은이는 허둥지둥 허리춤에서 단검을 들고 칼을 떨어트린 그 뱃전에다 표시를 했다. 이윽고 배가 나루터에 닿자 그는 곧 옷을 벗어 던지고 표시를 한 뱃전 밑을 강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칼이 그 밑에 있을 리가 없었다.

듣고 보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 '백년의 기도'

향촌 권오창씨 발간

서울직장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겸 이사장을 지내고 현 본원 종보자문위원인 향촌 권오창(76. 영주. 검교공파 남천공계 35世)씨가 지난 7월30일 가온기획 刊으로 '듣고 보고 잊을 수 없는 백년의 기도'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08년 9월 '등산하면서 역사 속으로(한국명산 50 산행기)' 1편을 발간하고 금반 역사기행(산길따라 물길따라) '백년의 한'을 합본하여 출간했다. '백년의 기도'는 권오창씨, 故 빙모<홍정순(남양)>의 한 많은 지나간 인생을 여과없이 기록한 유고이며, 이 유고는 너무나 애달프고 애석한 일면이 있어서 이를 그 유고에 의하여 지난날의 회환을 되뇌이고자 하며 이에 대한 사죄의 일편을 서술했으며 빙모의 평소 심회를 기록으로서 남겨 후손들에게 경계의 본으로 삼고자 했다.

책의 내용은 303쪽으로 ①추모의 글 ②가사 ③시(詩) ④서신 ⑤수상 ⑥일기 △부록(산길따라 물길따라 산행기·국내외 산행)으로 묶어서 펴냈다.

또한 빙모의 일생을 통한 신고한 삶과 가사(家事)와 애정과 인생관 등에 대한 실천이성 무첨이조를 명심하고 삶의 지침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빙모는 후손들에게 '제일 앞서 간다고 자만하지 말라 뒤에 따라오는 자는 곧 앞선 자를 뛰어 넘을 수 있으니 언제나 조심 조심하여 사회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라' 고 평소에 강조.

한편, 향촌 권오창씨는 부친 죽정 권영식씨와 모친 임계희(예천)씨로 태어나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노동청 지방사무소장 겸 수석근로감독관을 거쳐 서울직장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겸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겸 홍보대사, 남천공 호구록발행인 등을 역임했으며 현 본원 종보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는 '남기고 싶은 이야기 향촌 회고록' 외 10권, 기타 논문 다수가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대한민국을 빛낸 골프여왕 박인비

박인비(朴仁妃:25 광운대)선수가 지난 6월 27-30에 미국 뉴욕주 사우샘프턴 세보낵 골프장에서 열린 제 68회 미국여자오픈에서 우승을 하였다. 이로서 그는 올시즌 LPGA 6승째이며 메이저 대회 3회 연속우승, 한국선수 시즌 최다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메이저 3연승은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 이후 63년 만이며, 우리 선수로 시즌 5승의 기록을 가진 박세리를 추월하였다. 이로서 그는 미국여자골프(LPGA) 랭킹1위, 상금 1위 유지와 올해의 선수상도 가능성이 보여, 명실공이 세계 여자골프 제왕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박인비의 골프스토리는 10살 때 경기도 분당 서현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하여 죽전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골프유학을 갔다. 14살 때인 2002년에 전미 주니어 선수권대회에 우승을 하였다. 2008년 19세의 최연소 미국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한 뒤 슬럼프에 빠져 시련기를 맞기도 했다.

다시 LPGA 무대에 도전하여 작년 7월 에비앙 마스트에 우승을 기점으로 지난 1년간 우승 7회, 준우승 7회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US여자오픈은 미국 여자골프에서 가장 전통과 권위와 있는 대회로 코스가 까다롭고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이번 대회 총상금은 3,250,000달러(약 38억 원)이다. 68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1998년 박세리가 처음으로 우승을 하였으며, 2005년 김주연, 2008년 박인비, 2009년 지은희,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에 이어 일곱 번째 우승이며 박인비 자신은 두 번째 우승이다.

필자는 이번 US여자오픈 시작 날부터 끝까지 시청하였다. 총 22개국 15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열전을 벌렸는데, 예선에서 우리나라 박세리, 신지애, 미국 미셸위, 줄리잉스트, 대만 청냐니, 노르웨이 페테르센 등 쟁쟁한 선수들이 탈락하고 말았다. 특히 예선 둘째 날에 세계 랭킹 2위인 루이스(미국) 와 3위 수잔 페트레센(노르웨이)과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면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9언더파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 김인경과 한국선수끼리 경기를 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박인비 우승, 김인경 준우승, 유소연 3위로 한국여자골프의 위상을 또다시 세계만방에 알렸다.

박인비는 그동안 스폰서가 없어 고민하였다. 2008년 US 여자오픈에 우승 후 SK 텔리콤과 계약을 맺었으나 2010년 해약하고 28개월간 스폰서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나비스코 메이저에 우승 후 5월 3일 KB금융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4년간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권해조)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인생의 4계절(4)

〈지난호에 이어서〉

인생에는 반드시 두 얼굴,즉 두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삶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있고, 명(明)이 있는가 하면 암(暗)이 있고, 부(富)가 있는가 하면 빈(叢)이 있고, 행복이 있는가 하면 불행이 있다. 건강이 있으면 질병도 있기 마련이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좌(左)가 있으면 우(右)도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으며, 아름다움(美)이 있으면 못생김(醜)도 있고, 양(陽)이 있으면 음(陰)도 있는 법이다. 이외에도 대어(對語)가 우리 인생에는 수 없이 많다. 어느 경우나 당연히 있을 것이 있는 법이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법은 없다.

나는 가끔 '선과 악, '좌와 우', '희(喜)와 비(悲)'에 관하여 글을쓴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이와 같은 두 얼굴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는 언제나 대립(對立)되는 부분이나 상반(相反)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없다. 그래서 인생의 모습을 단순하게 설명하거나 그려내기는 참으로 어렵다. 글을 쓰는 작가들이나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인생을소재로 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남모르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지극히 당연하다.

나는 민생의 긍정적인 면을 '플러스로 표현하고 부정적인 면을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도 한다. 누구나 마이너스 면보다 '플러스 면을 추구하려는 것은 당연한 욕구이며 사람들은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다.

나는 이제까지 '인생은 고생'이라고 몇 번이나 써왔다. 어느모로보거나 이 짤막한 말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생 속에서도 '사는 보람'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과연 어떠한경우에 '사는 보람을 찾을수 있을까? 나는 서슴없이 대답한다. '마이너스속에서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고. 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얼마쯤이라도 가능한 일이다. '위인전'을 읽어보면 예외 없이 그들은 마이너스 속에서 '플러스'를 찾고 있다.

'대립'이나 '상반'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당대를 휘어잡은 위대한 사상가들에게도 있다. 나는 평소 '정신분석'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꿈이나 공상·연상 따위를 분석하며,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밝혀내려 하는 일을 '정신분석'이라고 한다. '정신분석'이 정신병의 치료나 사회현상의 연구 등에 응용된다는사실은 식자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의학자가 프로이드(SigmundFreud 1856-1939)와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이다.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이자, 정 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꿈·착각·해학과 같은 정상적인 심리에도 연구를 확대하여 '심층 심리학을 확립했다.

융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정신분석과 유효성을 인식하고 연상 실험을 창시하여 프로이드가 말하는 억압된 것을 입증하고, '콤플렉스' 라 이름붙였다. 그는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세우고 성격을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나눈 것으로 유명하다. 융이 프로이드의수제자로서 공동연구를 했다는 사실은 주지되어 있는 바이며, 이 두사람은 당대에 막심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상가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도 이 두 사람이 정신의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대단히 크다.

그런데 융이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리비도(libido)'의 개념을 성적(性的)이 아닌 일반적인 에너지라고 한 데서 프로이드와 대립하게되었다. '리비로는 정신 분석 학에서 무의식의 심층(深層)에서 나오는 인간의 행동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욕구를 말한다. 의식되지는않지만 마음 깊은곳에 새겨져 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의식될 수 있는 심리를 심층심리(深層心)라고 하며, 무의식 심리 또는 잠재의식이라고도 한다.

두 학자 사이에 있는 이견으로는 '우연'에 대한해석 차이를 들수 있다.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예지능력(豫知能力)이나 초능력(繼能力)을 프로이드는 황당무계하다고 일축한 데에 대하여 융은 이이론을 확신한 것이다. 프로이드는 합리주의자였으며 이와 같은 생각은 객관성을 존중하는 과학정신에 반한다고 믿었다.

이에 대하여 융은 예지능력이나 초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는 황당무계하거나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불가사의한 힘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고 '우연'이나 '꿈'을 이와 같은 논법으로 해석하여 프로이드와는 정반대적 사고를 주장했던 것이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하여서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실감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융은 이 일로 해서 프로이드와 대립적 존재가 되었으며 1914년에는 프로이드와 함께 창설한 정신분석학회를 탈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융은 그 후 자신의 심리학인 분석심리학을 수립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그의 심리학은 신비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 데에다가 이해가 쉽지 않았던 까닭에 심리학 일반에 대하여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립이나 상반되는 상황이 생기는 사례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전문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립관계나 상반관계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쨌든 우리들의 인생에서 대립이나 상반되는 상황은 언제나 관찰되는 현상이며, 인생의 두 얼굴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한 얼굴만이 지속되지 않고 두 얼굴이 교대해서 나타나는 사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끝〉

미 독립기념행사에 참가하는 권문의 사람들

△미독립기념일 권용섭화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독도문화 실효적 지배를 주장해 온 독도화가 권용섭씨가 그 가족이 한국의 권정호작가 (한국 보도사진협회 부회장)를 초청하여 전시회를 갖는다.

오는 7월 4일 우정의 종 공원에 위치한 Bell Gallery(3601 S. Gaffey St. San Pedro, CA 90731 Bell Gallery) 에서 '독도 이야기' 전시회와 수묵퍼포먼스를 갖는다.

경상북도 안용복재단과 우종의종 보존위원회가 후원하는 전시회가.

권용섭화백은 독도를 연상하는 다양한 풍경들과 권정호보도사진가의 독도에서 살아가는 인물 10점을 더해 독도의 생생함을 미국 사회에 전하려는 취지로 기획했다 고 한다.

또한 권화백은 이를 해마다 개최하여 미국행사를 통해 권문 예술가들 한국의 작가 분들이 희망하면 미국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개막 날인 7월 4일은 미 독립237주년을 기념하는 날로서 타종식과 공연, 전시등 다양 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다.

이중 권화백은 11시 부터 12시 까지 약 한 시간 동안은 '독도화가 권용섭과 함께' 프로그램에 수묵퍼포먼스를 한다.

이곳은 한국의 에밀레종을 본떠 만들어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독립2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한 것을 미국정부는 부지를 제공해 설립한 것이다.

이 뜻깊은 우정의 종각 앞에서 20여 미터에 달하는 대형 캠퍼스를 펼쳐 한국의 종각을 그리고 태평양에 떠 있는 카타리나 섬을 독도로 변형하여 그리게 된다.

이 행사를 위해 권청실양은 재학 중인 시카고예술대 Ryan Snow (라이언스노우)작가와 현지에서 겁회한 다색인종이 퍼포먼스에 참가한다.

'라이언스노우'는 한국 국회와 종로에서 권용섭전을 관람하고 종로에서는 수묵속사 퍼포먼스에 참여한바있다.

미국 현지인으로서 한국의 아름다운 영토를 홍보하는데 역활을 하기로 하고 산페드로 행사에 권용섭과 함께 수묵화를 그리며 카이로 선언문을 낭독하는 거국적 퍼포먼스이다.

(카이로 선언문은 1943년 일본의 무력으로 침략한 한반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한국에 돌려주라는 국제문서이다.)

20년전통의 농장직매
고송농원
♣ 도·소매 ♣ 경조화환 ♣ 조경공사
♣ 꽃바구니 ♣ 각종화환 ♣ 관 엽
서 울 山 岳 會 權 赫 九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http://flowertown.kr
TEL : 02)5752-5555 FAX : 02)6008-0677 H. P : 010-2240-4242

稅務士 權 九 文 事務所
■ 양도, 상속, 증여세 상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개인, 법인의 기장, 고문
■ 기타 세무상담 일체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 보보스텔 208호
TEL:2066-9741~4 / H.P : 011-307-2443 FAX : 2066-9745